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181호 [무게 제24594호] 주제 103 (2014)년 6월 30일 (월요일)

위대한 김정은 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전략군의 전술로켓발사훈련을 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 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전략군의 전술로켓발사훈련을 지도하시였다.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황병서 동지가 동행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를 현지에서 조선인민군 전략군 사령관인 전략군 상장 김락경 동지를 비롯한 지휘관들이 맞이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의 지도를 받게 된 전략군장병들의 가슴마다에는 침략자들이 감히 선불질한다면 무자비한 타격을 안기고 원수들의 아성을 지구상에서 감시소정점에 오르시어 발사훈련계획에 방법대로 진행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께서는 소멸을 위한 정밀유도 및 산포사격 주시였다.



하고 비행궤도와 목표수역에 대한 안전검열수색을 빈틈없이 진행한데 기초하여 진행된 조선인민군 전략군의 전술로켓발사훈련은 지역의 평화와 안전은 물론 국제항해질서와 생태환경에 사소한 영향도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였다.

발사훈련을 통하여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로 만든 전술로켓들의 전투적성능이 남김없이 검증되었으며 주체적인 로켓사격방법이 완성되게 되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전술로켓발사가 성과적으로 진행되는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고 훈련에 참가한 전략군장병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순간 천지를 진감하는 폭음소리와 함께 탄도로켓들이 세찬 불줄기를 내뿜으며 하늘로 날아올랐다.

훈련은 적의 개별목표와 집단목표 로켓발사를 진행할데 대한 명령을 엄수하여 발사 전 과정을 과학적으로 계산

2 면 으 로 계 속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전략군의 전술로켓발사훈련을 지도하시였다



1 면 에서 계속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우리 인민에게 가장 소중한 평화적환경은 그 누가 마련해주는것도, 그 무엇을 팔고 살수 있는것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진정한 평화는 그 누구도 범접 못하게 자기의 힘이 강할 때에만 지켜지고 오직 자기의 힘에 의해서만 담보되는것만큼 조국의 안전과 평화를 사수하고 혁명의 진취물을 굳건히 수호하기 위한 우리의 자위적억제력을 천백배로 더욱 다져나가는데 최대의 박차를 가해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우리의 위업과 자주권, 생존권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침략무리들이 합부로 날뛰지 못하도록 전략군의 싸움준비를 강화하고 주체적인 로켓 과학기술과 사격방법을 더욱 발전완성시켜나가자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전략군장병들이 조성된 정세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고도의 격동상태에서 강위력한 탄도로켓들을 임의의 순간에 발사할수 있도록 만단의 준비를 철저히 갖춤으로써 우리 공화국에 대한 병적거부감과 제질적인 적대시정책을 추구하는 미제와 그 추종무리들의 망동을 억제하고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을 확고히 담보하리라는 크나큰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의 크나큰 믿음을 받아안은 조선인민군 전략군의 장병들은 원수들이 감히 움쩍하기만 한다면 정의의 총대, 복수의 총대로 단호히 짓몽개버리고 조국의 안전과 인민의 행복을 굳건히 담보해갈 불타는 맹세를 다지였다.

본사정치보도반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조선속도를 창조하며 질풍같이 내달리자

5월 1일 경기장을 우리 나라 체육 시설의 상징으로 훌륭히 완공하자

군 민 령 기 모 임 진 행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5월 1일경기장개건현장을 현지 지도하시면서 주신 말씀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군민력기모임이 29일에 진행되었다.

내각부총리 겸 국가계획위원회 위원장 로두철동지와 개건현장 지휘부 일군들, 관계부서 일군들,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군 군인들, 건설자들이 모임에 참가하였다.

모임에서는 로두철 동지의 보고에 이어 조선인민군 군관 연수일, 혁명사적지건설지도국 국장 류정남, 조선인민내무군 군관 현영남, 현장지휘부 본부장 서길복이 결의로문을 하였다.

보고자 와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이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경기장 개건현장을 찾으시어 공사장장을 구체적으로 로해하시면서 체육강국을 지향하는 현시대의 요구에 맞게 경기장을 일신시키는

데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5월 1일경기장은 나라의 체육발전과 인민들의 문화정서생활에 이바지하는 중요한 곳이라고 하시면서 우리 나라 체육시설의 상징으로, 문명국의 체모에 맞는 경기장으로 훌륭히 개건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겠다고 말씀하였다.

혁신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키고있는 건설자들의 위훈을 높이 평가하시고 개건공사를 최상의 수준에서 다그쳐 끝내기 위한 방향과 방법을 환히 밝혀 주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올해 당장전기일까지 5월 1일 경기장개건을 끝내야 한다고 하시면서 건설자들이 당의 의도대로 공사를 제기에 일적으로 완공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셨다고 말씀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지도는 당의 뜻을 높이 받들고 건설

의 새로운 번영기를 열어가는 전체 군인들과 건설자들에 대한 크나큰 믿음과 고무로 된다고 강조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승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현지지도에서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빛나게 관철해나갈 결의를 피력하였다.

어머니당의 인민편, 후대편을 심장에 새기고 군민협동작전의 위력으로 조선속도창조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릴것이라고 말했다.

주체적이면서도 세계적인 식견과 안목을 가지고 공사를 창조적으로, 혁신적으로 진행함으로써 경기장을 세상에 자랑할만한 체육시설로 훌륭히 개건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가르쳐 주신대로 판관들, 경기장바다, 각종 봉사시설들을 손색없이 잘 꾸려 경기장을 주체적인 건축물

이 집대성된 로동당시대의 기념비적건축물로 그 면모를 일신시킬것이라고 말했다.

지휘성원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는것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대중의 앙양된 열의에 맞게 사상선, 선진노동의 번바람을 더욱 세차게 일으키며 대외의 앞장에서 진격의 돌파구를 열어 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편관단원들에서 필요한 설비와 마감자재들을 제때에 보장하며 모든 건설자들이 경기장개건공사에 뜨거운 애국심과 깨끗한 양심을 바쳐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지말씀을 철저히 관철하여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명도업적이 깃들어있는 5월 1일경기장을 훌륭히 개건할것이라고 강조했다.

모임에서는 결의문이 채택되었다.

【조선중앙통신】

주체 문화 예술 건설에서 틀어쥐고 나가야 할 기본원칙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는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우리의 문화예술을 수령의 문화예술로, 당정책화된 문화예술, 인민의 문화예술, 전투적인 문화예술로 발전시켜나가기 합니다.》

문화예술을 수령의 문화예술, 당정책화된 문화 예술, 인민의 문화예술, 전투적인 문화 예술로 발전시켜나가기 하는것은 주체 문화예술건설의 기본원칙이다.

문화예술을 수령의 문화예술로 건설하는것은 주체적문화예술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가는 데서 우리 문화예술의 첫째가는 본분이고 가장 영예로운 임무이다.

주체문화예술의 역사는 수령의 문화예술로 발전 하여온 영광적인 로정이다.

오늘날 우리 인민이 제일 기다리고 보고싶어하는 예술작품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력사와 위인상을 훌륭히 형상한 작품들이다.

문화예술부문의 창작가, 예술인들은 새 세기에도 수령형상작품들을 최상의 수준에서 즐기게 창작 하여야 한다. 수령형상작품에서 결정적인 전환이 일어날때 사회주의 우리 조국은 김일성, 김정일조선으로 세기에 더욱 빛나게 된다.

우리 문화예술을 당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친한 군민을 당의 사상과 정책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 당정책화된 문화예술로 만드는것은 강성국가건설의 최후수령을 앞당기기 위한 중요한 담보이다.

문화예술부문의 창작가들은 매 시기 제기되는 당정책들에서 중추를 잡고 당정책관료들 들끓는 현실에서 그 정당성과 생활력을 가지고있는 예술적형상을 결코 포기우를 것을 생활화, 습성화하여야 한다.

우리 당정책의 생활화와 우월성이 남김없이 피사되는 들끓는 현실을 온몸으로 절감한 창작가의 심정에서만이 《바다 만풍기》와 같은 명작창작의상이 변혁이 되고 주옥같은 시어와 민족의

창작가 한껏 넘치는 명성이 울려나오게 되는 것이다.

문화예술부문의 창작가, 예술인들은 당의 목소리를 광범한 군중에 심어주고 그들을 부강조국 건설에 불려일으키는 혁명가라는 자각을 언제나 명심하고 창작과 창조, 예술활동과정을 당의 사상과 의지로 맥박치게 하여야 한다.

우리 당은 문화예술을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며 인민들자신이 창조하고 향유하는 인민의 문화예술로 발전시켜나가기하는것을 중요한 원칙으로 내세우고있다.

인민을 위해 복무하며 인민들자신이 창조하고 향유하는 인민의 문화예술을 건설하는것이 얼마나 정당한지는 현시기 모란봉악단의 공연활동이 실증해주고있다.

당 지도부에 새시대의 명작으로 창작된 《조국찬가》와 《당기어 영원히 그대와 함께》는 조국과 당을 우리 인민의 체魄과 생활을 통하여 소박하면서도 깊이있게 형상함으로써 철학적과 함께 인민성이 보장된 기념비적명곡으로 뿔수 있었다.

당과 인민의 기대에 맞게 문화예술을 건설하는 데서 중요한 원칙은 또한 우리 문화예술을 전투적인 문화예술로 발전시키는것이다.

문화예술의 참다운 생명력은 온 사회를 혁명적열정과 기개로 끓게 하고 사람들을 투쟁과 위훈으로 힘있게 불려일으키는데서 나타나야 한다. 문화예술 부문의 창작가, 예술인들은 광장명을 혁명열, 투쟁열로 들끓게 한 모란봉악단의 전투적인 예술활동 기풍을 적극 따라배워야 한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제 9차 전국예술인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내주신 력사적인 서한을 피독는 심정에 새긴 창작가, 예술인이라면 변천 현실속에서 들어가 창작의 붓을 달리고 화선시예술활동들 진공적으로 벌려야 한다.

【평양 6월 29일발 조선중앙통신】 6.25미제반대투쟁의 날에 즈음하여 남포시, 라선시 군중대회가 29일에 진행되었다.

대회장에는 철천지원수 미제침략자들과 남조선피괴적패당을 축출쳐버리고 우리 인민이 흘린 피값을 천백배로 받아내고야말 필적의 의지로 피를 흘리고 모여온 각계군중들로 채워져 있었다.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조국통일우호를 철저히 관철하자!》, 《위대한 김정은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반미대결전에서 영웅조선의 본패를 보여주자!》, 《조선인민의 철천지원수 미제침략자들을 소멸하자!》 등의 구호판들과 선전화들이 대회장들에 세워져 있었다.

대회들은 지방당, 정전, 경제기관, 근로단체일군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청년학생들이 참가하였다.

대회들은 《죽음을 미제침략

자들에게》 노래주악으로 시작되었다.

남포시군중대회에서는 리길준 시인위원회 위원장의 연설에 이어 로동계급을 대표하여 시도 시전선리단 리더장 김명철, 농업근로자들을 대표하여 항구구역 갈천협동농장 작업반장 리길녀, 청년학생들을 대표하여 남포사범대학 학생 리철이 연설하였다.

연설자들은 미제가 도발한 조선전쟁은 인류전쟁사상 류례없는 가장 야만적이며 반인륜적인 침략전쟁이었다고 준철히 규탄하였다.

당과 수령의 명도를 높이 받들고 조국의 자유와 독립, 민족

의 자주권과 혁명의 전위들을 수호하기 위해 신약같이 밀려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을 미제는 굴복시킬수 없었다고 말했다.

오늘도 미제가 북침전쟁연습에 열을 올리면서 정세를 일촉즉발의 전쟁경계로 불어가고 있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조선반도에 우리를 겨냥한 핵전쟁의 검은구름이 항상 드리울 때 우리는 결코 수수방관할수 없으며 강력한 자위적힘으로 나라의 자주권과 평화의 수호하고 민족의 존엄을 굳건히 지켜나갈것입니다.》

연설자들은 만일 미제가 지난 전쟁경에서 당한 수치스러운 참패를 망각하고 이 땅에서 또다시 전쟁의 불을 지른다면 침략자와 매국노들을 모조리 처부 달라나기 전성미지팡이들을 한눈도 남김없이 축약쳐버릴 필적의 의지를 안고 대고조선투쟁마다에서 세상을 놀래우는 기적을 창조하는 청년영웅이 될것이라고 강조했다.

라선시군중대회에서는 조영호 시인위원회 위원장의 연설에 이어 농업근로자들을 대표하여 시농촌경리위원회 최창 장철, 청년학생들을 대표하여 라선해운대학 학생 리성태 등이 연설하였다.

연설자들은 만일 미제가 지난 전쟁경에서 당한 수치스러운 참패를 망각하고 이 땅에서 또다시 전쟁의 불을 지른다면 침략자와 매국노들을 모조리 처부 달라나기 전성미지팡이들을 한눈도 남김없이 축약쳐버릴 필적의 의지를 안고 대고조선투쟁마다에서 세상을 놀래우는 기적을 창조하는 청년영웅이 될것이라고 강조했다.

라선시군중대회에서는 조영호 시인위원회 위원장의 연설에 이어 농업근로자들을 대표하여 시농촌경리위원회 최창 장철, 청년학생들을 대표하여 라선해운대학 학생 리성태 등이 연설하였다.

연설자들은 만일 미제가 지난 전쟁경에서 당한 수치스러운 참패를 망각하고 이 땅에서 또다시 전쟁의 불을 지른다면 침략자와 매국노들을 모조리 처부 달라나기 전성미지팡이들을 한눈도 남김없이 축약쳐버릴 필적의 의지를 안고 대고조선투쟁마다에서 세상을 놀래우는 기적을 창조하는 청년영웅이 될것이라고 강조했다.

라선시군중대회에서는 조영호 시인위원회 위원장의 연설에 이어 농업근로자들을 대표하여 시농촌경리위원회 최창 장철, 청년학생들을 대표하여 라선해운대학 학생 리성태 등이 연설하였다.

연설자들은 만일 미제가 지난 전쟁경에서 당한 수치스러운 참패를 망각하고 이 땅에서 또다시 전쟁의 불을 지른다면 침략자와 매국노들을 모조리 처부 달라나기 전성미지팡이들을 한눈도 남김없이 축약쳐버릴 필적의 의지를 안고 대고조선투쟁마다에서 세상을 놀래우는 기적을 창조하는 청년영웅이 될것이라고 강조했다.

라선시군중대회에서는 조영호 시인위원회 위원장의 연설에 이어 농업근로자들을 대표하여 시농촌경리위원회 최창 장철, 청년학생들을 대표하여 라선해운대학 학생 리성태 등이 연설하였다.

연설자들은 만일 미제가 지난 전쟁경에서 당한 수치스러운 참패를 망각하고 이 땅에서 또다시 전쟁의 불을 지른다면 침략자와 매국노들을 모조리 처부 달라나기 전성미지팡이들을 한눈도 남김없이 축약쳐버릴 필적의 의지를 안고 대고조선투쟁마다에서 세상을 놀래우는 기적을 창조하는 청년영웅이 될것이라고 강조했다.

라선시군중대회에서는 조영호 시인위원회 위원장의 연설에 이어 농업근로자들을 대표하여 시농촌경리위원회 최창 장철, 청년학생들을 대표하여 라선해운대학 학생 리성태 등이 연설하였다.

연설자들은 만일 미제가 지난 전쟁경에서 당한 수치스러운 참패를 망각하고 이 땅에서 또다시 전쟁의 불을 지른다면 침략자와 매국노들을 모조리 처부 달라나기 전성미지팡이들을 한눈도 남김없이 축약쳐버릴 필적의 의지를 안고 대고조선투쟁마다에서 세상을 놀래우는 기적을 창조하는 청년영웅이 될것이라고 강조했다.

라선시군중대회에서는 조영호 시인위원회 위원장의 연설에 이어 농업근로자들을 대표하여 시농촌경리위원회 최창 장철, 청년학생들을 대표하여 라선해운대학 학생 리성태 등이 연설하였다.

연설자들은 만일 미제가 지난 전쟁경에서 당한 수치스러운 참패를 망각하고 이 땅에서 또다시 전쟁의 불을 지른다면 침략자와 매국노들을 모조리 처부 달라나기 전성미지팡이들을 한눈도 남김없이 축약쳐버릴 필적의 의지를 안고 대고조선투쟁마다에서 세상을 놀래우는 기적을 창조하는 청년영웅이 될것이라고 강조했다.

라선시군중대회에서는 조영호 시인위원회 위원장의 연설에 이어 농업근로자들을 대표하여 시농촌경리위원회 최창 장철, 청년학생들을 대표하여 라선해운대학 학생 리성태 등이 연설하였다.

연설자들은 만일 미제가 지난 전쟁경에서 당한 수치스러운 참패를 망각하고 이 땅에서 또다시 전쟁의 불을 지른다면 침략자와 매국노들을 모조리 처부 달라나기 전성미지팡이들을 한눈도 남김없이 축약쳐버릴 필적의 의지를 안고 대고조선투쟁마다에서 세상을 놀래우는 기적을 창조하는 청년영웅이 될것이라고 강조했다.

라선시군중대회에서는 조영호 시인위원회 위원장의 연설에 이어 농업근로자들을 대표하여 시농촌경리위원회 최창 장철, 청년학생들을 대표하여 라선해운대학 학생 리성태 등이 연설하였다.

연설자들은 만일 미제가 지난 전쟁경에서 당한 수치스러운 참패를 망각하고 이 땅에서 또다시 전쟁의 불을 지른다면 침략자와 매국노들을 모조리 처부 달라나기 전성미지팡이들을 한눈도 남김없이 축약쳐버릴 필적의 의지를 안고 대고조선투쟁마다에서 세상을 놀래우는 기적을 창조하는 청년영웅이 될것이라고 강조했다.

라선시군중대회에서는 조영호 시인위원회 위원장의 연설에 이어 농업근로자들을 대표하여 시농촌경리위원회 최창 장철, 청년학생들을 대표하여 라선해운대학 학생 리성태 등이 연설하였다.

상반년 석탄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한 기세로 석탄공업성에서

새로운 비약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키며 석탄전선이 기세 좋게 나가고있다.

총합된 자료에 의하면 석탄공업성에서 지난 6월 24일까지 상반년 석탄생산계획을 빛나게 완수하였다. 계획수행기간 성적인 석탄생산량은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수십만이나 더 늘어났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는 희망찬 새해에 승리에 대한 확신과 열정에 넘쳐 영웅적진군을 다그침으로써 혁명과 건설에서 일대 번영기를 열어놓아야 합니다.》

석탄공업성에서는 서부지구의 대규모탄광들의 생산능력확장에 계속 큰 힘을 넣으면서 모든 일군들과 관부들이 대담한 공격적으로 진격의 돌파구를 열어제기도록 경제조직사업을 짜고들었다.

서부지구의 탄광들은 물론 북부와 동부지구를 비롯한 전국각지의 모든 탄광들에서 높은 생산실적이 기록되는 속에 석탄공업성적으로 매일 계획보다 수천톤의 석탄이 더 생산되어 최근년간에 불수 없었던 증산성과가 기록되었다.

순천, 덕천, 북창, 득장지구의 탄광들을 비롯한 화력탄보장단위 일군들과 탄부들이 권대적혁신창조의 앞장에서 힘차게 내달렸다.

순천지구의 2.8직동청년탄광, 천성청년탄광, 명대탄광에서는 화력발전소들에 필요한 석탄을 최우선적으로 생산보장하는데 열심을 기울여왔다. 특히 천성, 명대, 동발나루를 비롯한 설비, 자재들을 앞질러가며 마련하여 매일 맡겨진 석탄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였다.

덕천지구의 탄광들이 크게 소

리치며 내달렸다. 올해에 들어와 기본전투단위인 강들의 막장지휘체계를 현대화한 이곳 탄광들의 일군들과 탄부들은 생산능력확장을 위한 여러 계통공사와 유망한 새 구역, 새 개개발을 적극 내밀어 높은 생산실적을 기록하였다. 편합기업소에서는 지난 6월 중순 또다시 수십대의 화물자동차로 북창의 대동력기지에 많은 량의 석탄을 집중수송함으로써 이곳 로동계급의 전력증산투쟁을 크게 고무하였다.

북창지구의 남천, 인포탄광과 득장지구의 득장청년탄광, 통산탄광, 명학탄광, 천내지구의 문천, 천내, 삼천탄광의 일군들과 탄부들도 끝없는 확고히 앞세우고 탄광마다에서 집단적혁신창조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 전례없는 증산성과를 거두었다.

봉천, 조양탄광을 비롯한 개천

지구탄광편합기업소아래 탄광들에서는 장마철석탄생산준비를 미리 갖추는데 큰 힘을 넣는 한편 탄자들의 순환를 부단히 높여 석탄생산량을 끊임없이 늘였다.

구장지구의 통수탄광, 강동지구와 함남지구의 탄광들에서도 상반년기간 높은 석탄생산실적이 기록되었으며 금야청년탄광, 삼산탄광을 비롯한 탄광들에서도 매일 계획보다 많은 량의 석탄이 쏟아져나왔다.

덕천탄광기계공장, 순천탄광기계공장을 비롯한 보장단위 로동계급은 선진과학기술을 생산에 적극 받아들이고 부촉되는 자재를 자제로 마련하면서 많은 탄광설비부속품과 소공품들을 생산하여 탄광들에 보내줌으로써 나라의 석탄산을 높이 쌓아 올리는데 적극 기여하였다.

본사기자

논 김매기성과 계속 확대

각지 농촌들에서

농사를 잘 짓는것이 조국의 운명, 혁명의 승패와 관련된 중요한 정치적문제라는것을 심장에 새기고 김매기전투에 헌신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쳐가고있다.

평안북도의 농촌들에서는 논김매기성적을 부채 늘리었다.

천하, 삭주, 대관, 벽동, 동창, 창성군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합리적인 김매기수단들을 빈틈없이 갖추어놓고 그 리용률을 높여 논두벌김매기를 지난해보다 훨씬 앞당겨 끝내었다. 박천, 선천군의 농장들에서도 포진별, 남작별김매기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역량을 집중하여 짧은 기간에 논김매기를 해체했다. 신의주시의 농장들에서도 논김매기 성과를 함으로써 논두벌도적으로 논두벌김매기를 한주 이상 앞당겨 끝내었다.

황해남도의 농촌들에서 논김매기실적이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하여 1.3배이상 뛰어오르고 있다. 재령군 일군들과 농업근로

자들이 분발하여 펼쳐나갔다. 군안의 농업근로자들은 농사는 투수를 따지는 경제실무적문제에 아니라 더는 물리설수 없는 정치적문제라는것을 깊이 새기고 논김매기에서 헌신 열성을 기록하였다. 삼지강협동농장 일군들은 농업근로자들의 정성열을 발동하여 모든 논밭을 꽃발처럼 알뜰히 가꾸었다. 배천, 장연, 은천, 봉천, 청남군에서도 매일 많은 면적의 논김매기를 질적으로 해체함으로써 27일현재 논두벌김매기를 끝내었으며 연안, 안악군이 구투를 바쳐 따서나갔다.

황해북도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도 논김매기질과 속도를 다같이 높여나갔다. 서흥, 도산군들에서는 이미 논세벌김매기를 맡김히 끝내었으며 사리원시, 탄산군에서도 김매기를 일정에 확대해 내밀었다.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27일현재 세벌김매기를 맡김히 끝내었다.

경양시의 주변농촌에서는 이

미 논두벌김매기를 짧은 기간에 끝내었다. 시흥경리위원회일군들은 모든 농장들이 자체의 실정에 맞게 김매기전투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그것을 어김없이 집행하도록 조직사업을 짜고 들었다. 한편 영동도를 따라왔다. 논김매기에서는 락방구역, 강남군, 강동군, 순안구역의 농장들이 앞서나갔다. 특히 강남군과 락방구역의 농장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논두벌김매기를 끝낸 김매기를 늦추지 않고 세벌김매기에 진입하여 매일 실적을 부채 늘이고있다.

자강도의 농촌들에서도 열흘에 한번씩 김을 돌려며 목표를 내세우고 농장별, 작업반별, 분조별사회주의경쟁을 힘있게 벌려 논두벌김매기를 질적으로 끝내었다.

각지 농촌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사회주의수호전의 전초선, 제 1선참호인 농업전선을 지켜낸 금지언덕 김매기성과를 계속 확대해나가고있다.

본사기자 활 연 옥

자강도의 농촌들에서도 열흘에 한번씩 김을 돌려며 목표를 내세우고 농장별, 작업반별, 분조별사회주의경쟁을 힘있게 벌려 논두벌김매기를 질적으로 끝내었다.

각지 농촌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사회주의수호전의 전초선, 제 1선참호인 농업전선을 지켜낸 금지언덕 김매기성과를 계속 확대해나가고있다.

본사기자 활 연 옥

자강도의 농촌들에서도 열흘에 한번씩 김을 돌려며 목표를 내세우고 농장별, 작업반별, 분조별사회주의경쟁을 힘있게 벌려 논두벌김매기를 질적으로 끝내었다.

각지 농촌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사회주의수호전의 전초선, 제 1선참호인 농업전선을 지켜낸 금지언덕 김매기성과를 계속 확대해나가고있다.

본사기자 활 연 옥

자강도의 농촌들에서도 열흘에 한번씩 김을 돌려며 목표를 내세우고 농장별, 작업반별, 분조별사회주의경쟁을 힘있게 벌려 논두벌김매기를 질적으로 끝내었다.

각지 농촌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사회주의수호전의 전초선, 제 1선참호인 농업전선을 지켜낸 금지언덕 김매기성과를 계속 확대해나가고있다.

본사기자 활 연 옥

자강도의 농촌들에서도 열흘에 한번씩 김을 돌려며 목표를 내세우고 농장별, 작업반별, 분조별사회주의경쟁을 힘있게 벌려 논두벌김매기를 질적으로 끝내었다.

각지 농촌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사회주의수호전의 전초선, 제 1선참호인 농업전선을 지켜낸 금지언덕 김매기성과를 계속 확대해나가고있다.

본사기자 활 연 옥

조로 두 나라 군악단 합동공연 진행

【평양 6월 29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인민군 군악단과 로씨야연방 국방성 중앙군악단의 합동공연이 29일 동평양대극장에서 진행되었다.

인민무력부장인 조선인민군 육군대장 현영철동지와 인민무력부 일군들, 관계부서 일군들, 인민군인들, 시내근로자들, 청년학생들이 공연을 관람하였다.

주조 로씨야연방대사관 성원들이 공연을 함께 보았다.

합동공연은 우리 나라 애국가와 로씨야애국가 주악으로 시작되었다.

전통적인 친선관계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두 나라 군악단 예술인들의 공동된 지향속에 2개 부로 진행된 공연무대에 다채로운 종목들이 펼쳐졌다.

취주악 《조선인민군가》, 녀성독창 《김정일동지께 드리는 노래》, 《그이 없인 못살아》 등에서 우리 예술인들은 영웅적조선인민군을 백전백승의 한길로 이끄시어 공화국의 존엄과 자주권을 굳건히 수호해주시고 백두산대국의 위용을 온 세상에 떨쳐주시는 결사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을 높이 칭송하였다.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친견한것의 성세, 방패가 되어 걸사용위 될것이라고 강조했다.

라선시군중대회에서는 조영호 시인위원회 위원장의 연설에 이어 농업근로자들을 대표하여 시농촌경리위원회 최창 장철, 청년학생들을 대표하여 라선해운대학 학생 리성태 등이 연설하였다.

관람자들의 열렬한 박수갈채를 받았다.

두 나라 예술인들이 함께 연주하는 취주악 《우리는 당신밖에 모른다》, 《조국찬가》, 《7.27행진곡》이 울려 퍼지며 공연분위기는 더욱 고조되었다.

출연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명도따라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의 최후수령을 앞당기기 위하여 힘차게 전진해나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앞길에는 오직 승리

와 영광만이 있을것이라는것을 강조하면서도 세련된 선율, 박력있는 리듬으로 힘있게 형상하였다.

공연에 심취된 관중들은 열정적으로 박수를 치면서 출연자들과 호흡을 같이하였다.

로씨야노래 《모스크바의 밤》을 혼성중창으로 부른 두 나라 예술인들은 높은 예술적기량으로 곡상의 요구를 잘 반영하였다.

취주악 《혁명영웅은 원수님

명도만 받든다》가 연주되는 속에 무대배경에 묘사된 경애하는 원수님의 태양의 모습을 우러르며 관중들은 무대배경의 명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이 땅에 기어올라 천하제일강국을 일떠세우고야말 철의 신념과 의지를 가다듬었다.

세기를 이어오며 더욱 두터워지는 우리 인민과 로씨야인민사이의 친선의 정을 보여준 공연은 관람자들의 절찬을 받았다.

관람자들의 열렬한 박수갈채를 받았다.

두 나라 예술인들이 함께 연주하는 취주악 《우리는 당신밖에 모른다》, 《조국찬가》, 《7.27행진곡》이 울려 퍼지며 공연분위기는 더욱 고조되었다.

출연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명도따라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의 최후수령을 앞당기기 위하여 힘차게 전진해나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앞길에는 오직 승리

와 영광만이 있을것이라는것을 강조하면서도 세련된 선율, 박력있는 리듬으로 힘있게 형상하였다.

공연에 심취된 관중들은 열정적으로 박수를 치면서 출연자들과 호흡을 같이하였다.

로씨야노래 《모스크바의 밤》을 혼성중창으로 부른 두 나라 예술인들은 높은 예술적기량으로 곡상의 요구를 잘 반영하였다.

취주악 《혁명영웅은 원수님

명도만 받든다》가 연주되는 속에 무대배경에 묘사된 경애하는 원수님의 태양의 모습을 우러르며 관중들은 무대배경의 명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이 땅에 기어올라 천하제일강국을 일떠세우고야말 철의 신념과 의지를 가다듬었다.

세기를 이어오며 더욱 두터워지는 우리 인민과 로씨야인민사이의 친선의 정을 보여준 공연은 관람자들의 절찬을 받았다.

관람자들의 열렬한 박수갈채를 받았다.

두 나라 예술인들이 함께 연주하는 취주악 《우리는 당신밖에 모른다》, 《조국찬가》, 《7.27행진곡》이 울려 퍼지며 공연분위기는 더욱 고조되었다.

출연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명도따라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의 최후수령을 앞당기기 위하여 힘차게 전진해나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앞길에는 오직 승리

와 영광만이 있을것이라는것을 강조하면서도 세련된 선율, 박력있는 리듬으로 힘있게 형상하였다.

공연에 심취된 관중들은 열정적으로 박수를 치면서 출연자들과 호흡을 같이하였다.

로씨야노래 《모스크바의 밤》을 혼성중창으로 부른 두 나라 예술인들은 높은 예술적기량으로 곡상의 요구를 잘 반영하였다.

취주악 《혁명영웅은 원수님

명도만 받든다》가 연주되는 속에 무대배경에 묘사된 경애하는 원수님의 태양의 모습을 우러르며 관중들은 무대배경의 명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이 땅에 기어올라 천하제일강국을 일떠세우고야말 철의 신념과 의지를 가다듬었다.

세기를 이어오며 더욱 두터워지는 우리 인민과 로씨야인민사이의 친선의 정을 보여준 공연은 관람자들의 절찬을 받았다.

관람자들의 열렬한 박수갈채를 받았다.

두 나라 예술인들이 함께 연주하는 취주악 《우리는 당신밖에 모른다》, 《조국찬가》, 《7.27행진곡》이 울려 퍼지며 공연분위기는 더욱 고조되었다.

출연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명도따라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의 최후수령을 앞당기기 위하여 힘차게 전진해나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앞길에는 오직 승리

와 영광만이 있을것이라는것을 강조하면서도 세련된 선율, 박력있는 리듬으로 힘있게 형상하였다.

공연에 심취된 관중들은 열정적으로 박수를 치면서 출연자들과 호흡을 같이하였다.

로씨야노래 《모스크바의 밤》을 혼성중창으로 부른 두 나라 예술인들은 높은 예술적기량으로 곡상의 요구를 잘 반영하였다.

취주악 《혁명영웅은 원수님

명도만 받든다》가 연주되는 속에 무대배경에 묘사된 경애하는 원수님의 태양의 모습을 우러르며 관중들은 무대배경의 명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이 땅에 기어올라 천하제일강국을 일떠세우고야말 철의 신념과 의지를 가다듬었다.

세기를 이어오며 더욱 두터워지는 우리 인민과 로씨야인민사이의 친선의 정을 보여준 공연은 관람자들의 절찬을 받았다.

관람자들의 열렬한 박수갈채를 받았다.

두 나라 예술인들이 함께 연주하는 취주악 《우리는 당신밖에 모른다》, 《조국찬가》, 《7.27행진곡》이 울려 퍼지며 공연분위기는 더욱 고조되었다.

출연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명도따라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의 최후수령을 앞당기기 위하여 힘차게 전진해나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앞길에는 오직 승리

와 영광만이 있을것이라는것을 강조하면서도 세련된 선율, 박력있는 리듬으로 힘있게 형상하였다.

공연에 심취된 관중들은 열정적으로 박수를 치면서 출연자들과 호흡을 같이하였다.

로씨야노래 《모스크바의 밤》을 혼성중창으로 부른 두 나라 예술인들은 높은 예술적기량으로 곡상의 요구를 잘 반영하였다.

취주악 《혁명영웅은 원수님

당 이 그 어 준 진 격 의 화 살 표 따 라 폭 풍 처 내 달 린 다

중 앙 동 물 원 개 건 보 수 공 사 장 에 서

인 민 의 행 복 이 꽃 피 는 그 날 을 향 하 여

릉 라 대 외 건 설 자 양 성 사 업 소 에 서

인민의 문화정서생활거점으로 훌륭하게 변모되고있는 중앙동물원, 한달도 안된 사이에 공사장의 면모가 또 한 번 크게 달라졌다. 모든 대상들의 골조공사가 마무리되고 여러 동물사들은 벌써 완공의 시각을 가까이하고 있다. 현대미와 조형미가 결합된 건축물마다에서는 금시라도 행복넘친 인민의 웃음소리가 들려오는 듯하다.

조선속도창조의 열풍을 세차게 일으키며 폭풍처럼 내달리고 있는 건설자들에게는릉라대외건설자양성사업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도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오늘 당의 령도밑에 우리 조국명예는 건설의 최전선기가 열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강성국가건설구상이 희한한 현실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동물원개건보수공사장에 달려나온 사업소의 일군들과 건설자들에게 말걸기 공사파제는 간단하지 않았다.

원승만, 코끼리사, 라조사를 비롯한 16개 동물사와 시설물들을 새로 건설 및 개건... 1단계공사대상인 근 1/3을 맡아하여야 하는 작업량을 놓고 일군들과 건설자들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다.

당시 정해진 시간에, 당이 요구하는 높이에서 말은 대상공사를 붙이 번쩍 나게 해제치고야 말 불같은 맹세로 이들의 의상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설법전, 립체전의 방법으로 공사를 힘있게 밀고나가기 위한 면밀한 작전이 펼쳐졌다. 건설자들의 정신력이 총폭발되어 전투장마다에서 날아날마다 새로운 기적과 위훈이 창조되었다.

동물체주장건설을 맡은 15직장의 로동계급은 종전의 건물을 불과 48시간동안에 들어내고 시공에서 나서는 기술적문제들을 자체로 풀어나가면서 공사속도를 부단히 높였다. 영무판과 타조사건설을 맡은 건설자들은 불과 한주일 남짓한 동안에 수천㎡의 절토공사를 진행한 데 이어 기초굴착 및 콘크리트 치기를 짧은 기간에 결속하고 기본골조공사에 진입하였다.

전반작업의 골조공사가 진행되고있던 어느날이었다. 현장을 돌아보면 사업소일군인 박중훈동무는 건설자들의 양양된 열의에 비해 공사속도가 높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원인은 취물과 골재를 비롯한 건설재료보장이 미처 따라지지 못하는데 있었다.

새로운 전선이 펼쳐졌다. 서광명동무를 비롯한 일군들이 건설자들을 앞질러가며 보장하기 위한 전투를 벌였다. 많은 취물용차들과 골재가 편이어서 공사장에 도착하기 시작하자 공사속도는 눈에 띄게 높아졌다. 원승이판건설을 맡은 3직장과 8직장에서 하루 최고 100여㎡의 콘크리트타입설치가 기

록될 때 타조사건설에 펼쳐나선 5직장의 로동계급은 불과 며칠 동안에 근 2만장의 블록을 생산하여 공사속도를 2배 이상 끌어올렸다.

건설자들은 당정책을 결사관철하는 길에서 순간의 답보나 만족도 허용하지 않았다.

지난 6월 초 사업소앞에는 기린사와 약대사를 비롯한 4개 대상의 공사를 짧은 기간에 결속할데 대한 과업이 나왔다.

그러나 사업소의 일군들은 스스로 더 높은 목표를 내세웠다. 지적된 대상들은 물론 동물체주

장, 표본사를 비롯한 여러 건축물건설도 최단기간에 다같이 와닥닥 끝내기 위한 돌격전이 개시되었다.

면밀하게 세워진 일일계획대로 공사를 내밀기 위해 일군들부터가 최선의 기판자가 되어 내달렸고 건설자들은 불가늠을 모르는 공격정신으로 낮에 밤을 이어가며 말은 대상공사를 힘있게 다그쳤다. 이들은 내부에 비를 동원하여 부숙되는 철근문제를 풀었고 용접기와 철근절단기 등의 설비들도 자체로 마련하여 공사속도를 높여나갔다.

이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규모가 큰 원승이판건설은 80%계선을 돌파하고 근 10개의 동물사에 대한 공사가 마감단계에 들어서게 되었다.

인민의 행복이 꽃피는 그날을 향하여!

우리 당의 숭고한 인민사상을 현실로 펼쳐간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조선속도창조투쟁에 산악같이 펼쳐나선 사업소의 일군들과 건설자들은 오늘도 창조물마다에 값높은 위훈의 자욱, 총정의 자욱을 새기며 구부로 내달리고있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류성국

격전속에서의 3일간

중앙동물원개건보수공사장에서 장엄한 건설의 교향곡은 어떻게 울리는가.

조선인민내무군 정창복소속부대의 군인건설자들이 1단계로 진행한 일부 동물사들의 골조 및 벽체미장공사에 들어갔다.

지정된 날까지 대상별공사

기 발 한 공 법 으 로

시간을 주름잡으며 혁신을 창조해가는 이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도저히 허용될 수 없는 일이었다.

사업소적인 론리가 거들될 때 건설자들에게서 혁신안이 나왔다.

각색과 보온성이 높은 수

그 방대한 미장면은 단 3일 동안에 미끈해졌다. 골조공사에서 한사람이 두몸, 세목씩의 일감을 도맡아 해체할 때 미장면에서 신발된 기능공들에 의한 집중공사가 벌어졌던 것이다.

이들은 지금도 당이 정해준 시간, 당이 요구하는 높이에서 실현하기 위해 구부로 내달리고있다.

집 중 수 송 의 불 길

건설장의 여러곳에서는 현재 골조공사가 끝나고 대상별로 지붕구조조립이 한창이다.

여기에 필요한 지붕재량은 적지 않지던 모든 공사는 공정별계획에 따라 중단없이 추진되고있다.

군인건설자들이 공사장에 일판을 전개한 첫날이었다.

중앙동물원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군인건설자들의 숙영지에 나타났다.

우리로 한전호에 선 전투원들입니다.

이렇게 말하며 동물원일군

한 전 호 에 선 전 투 원 들

들과 종업원들이 군인건설자들에게 펼쳐놓은 것은 한식출된 마을안고 성의껏 준비해온 원호물이었다.

공사의 첫날부터 이렇게 시작된 그들의 원군들은 지금도 계속되고있다.

한 기 동 적 인 수 송 작 전 을 펼 치 겠 다

결과 골조공사의 마감을 앞두고 현장에는 지붕공사에 쓰일 많은 량의 트라스가 예정되도록 도착하였다.

이곳 건설장에서 공사의 매 단계마다 성과로 말할 수 있는 담보는 이렇게 마련되고있다.



동물원개건보수공사장에서 일군들과 건설자들이 작업하고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시공을 끊임없이 확대하여야 건설부문에서 일을 할까 하면 적은 로력도 자재를 가지고 건설을 더 빨리, 더 질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조선인민내무군 정창복소속부대의 군인건설자들이 중앙동물원개건보수공사장에 달려나온 지는 얼마 되지 않았다.

그 기간에 이들이 해제된 공사량은 적지 않다. 길지 않은 그 나날 부대장님들이 이룩한 공사 성과는 결코 그 공사를 도맡아만 있지 않다.

사회주의물명을 누리게 될 인민의 행복을 창조하는 병사들의 위훈담은 어떻게 엮어지는가.

부대군인들이 추진하는 전반적인 공사파제가 그에 대한 대답을 준다.

이 단위는 지금 여러 동물사와 시설물을 비롯한 많은 공사대상을 맡고있다.

부대에서는 시작부터 높은 목표를 내세웠다. 모든 대상건설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었다.

손쉽게 점령할 목표가 아니었다. 여러 대상건설을 다같이 내밀지만 로력과 건설기계가 모자랐다. 소요일 혼합물량도 많았다. 하지만 부대장님들의 결심

결사의 8 시간, 기적은 이렇게 창조되었다

양각대외건설자양성사업소 일군들과 건설자들이

어떻게 시작하였다.

드디어 트라스설치작업이 벌어졌다.

기중기차들이 기온차게 팔을 휘둘렀다. 중앙이 18t 이하로 된 길이만도 50m인 트라스를 천천히 땅위로 들렸다.

그러나 이것은 첫시작에 불과하였다.

트라스가 벽체우를 향하여 일정한 높이까지 올랐을 때였다.

트라스가 한쪽으로 기울어지면서 어느 한 기중기차가 넘어질 듯이 기울어졌던 것이었다.

작업을 지휘하던 일군도, 기중기차운전공들도 당황하여 어찌 할바를 몰라하던 순간이었

간만에 트라스가 자기 위치에 정확히 설치되었다. 불가능이 무조건성의 정신력을 발휘하여 창조된 기적이었다.

물체를 가리려, 당의 부름에! 이런 결사관철의 신념이고 펼쳐나선 건설자들은 모다 새로운 기적을 창조하였다. 50일은 실히 걸려야 한다면 수십개 트라스설치공사가 불과 두주일만에 성과적으로 결속되었다.

사업소의 일군들과 건설자들은 오늘도 조선속도창조의 열풍을 더욱 세차게 일으키며 말은 대상건설에서 날아날마다 새로운 기적과 위훈을 창조해나가고있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류성국

대외건설지도 국 양각대외건설자양성사업소가 맡은 파충관건설장에 가보면 짧은 시간에 자기의 모습을 드러낸 강판트라스구조물을 볼 수 있다. 결코 평범한 나날에 이룩된 성과가 아니었다.

중앙동물원개건보수공사에 펼쳐나선 건설자들의 불굴의 정신력이 안아온 자랑찬 창조물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단원들과 근로자들이 김정은동지님의 체질화하고 실현에 철저히 구현하여 부강하고 번영한 사회주의조국을 일떠세우는 호명찬 투쟁에서 영웅적위훈의 창조자가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중앙동물원에 새로 일떠세우고 있는 파충관건설은 그 설계상수가 높은 것으로 하여 적지 않은 기술적문제들이 나왔다.

사업소에서 파충관의 지붕공사에 진입하였을 때였다. 강판트라스에 의한 지붕공사는 이곳 건설자들에게 생소했었다.

그러나 사업소의 일군들과 건설자들은 든든한 배심으로 공사를 힘있게 밀고나갔다. 시공과정에 제기되는 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과학원의 과학자들도 공사장으로 달려왔다.

집체적지혜가 합쳐지는 속에 지붕의 중간부위에 높이에 될 길이가 가장 긴 두개의 트라스를 지상에서 먼저 조립하고 그

다. 남편터 기중기차에 뛰어들어 사람이 있었다. 현장지휘부의 일군이였다.

일제대로 물러설 수 없다. 결사관철의 정신력을 남김없이 발휘하자.

짜레짜레 울리는 일군의 목소리를 힘으로 운전공들이 다시 종간을 다시금 으스스하게 틀어잡았다. 기발과 호각신호에 따라 기중기차들이 다시 용을 쓰기 시작하였다.

한호 또 한호, 결사관철의 분파초가 울렸다. 기울어졌던 육중한 트라스가 균형을 바로잡고 또다시 위로 솟구치기 시작하였다.

마침내 전투가 시작되어 8시

한 광 병

은 단호했다.

건설자들이 흐르는 시간은 조국의 승결과 모명할 태양을 부르는 시대의 박동이다.

공사량은 많지만 주라격대상에 힘을 넣고 결된 고리를 능숙히 풀어나갈 때 높은 실적을 낼 수 있다는 것이 이곳 지휘관들의 의지였다.

지휘관들과 군인건설자들은 끊임없이 혼합물량을 늘일 방법을 탐구했다. 혼합물의 양과 질이 공사실적과 구조물의 질적인 담보이기때문이었다.

질 제 고 는 공 사 의 생 명

《조선인민내무군 정창복소속부대에서》

노력에만 있지 않다.

사회주의물명을 누리게 될 인민의 행복을 창조하는 병사들의 위훈담은 어떻게 엮어지는가.

부대군인들이 추진하는 전반적인 공사파제가 그에 대한 대답을 준다.

이 단위는 지금 여러 동물사와 시설물을 비롯한 많은 공사대상을 맡고있다.

부대에서는 시작부터 높은 목표를 내세웠다. 모든 대상건설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었다.

손쉽게 점령할 목표가 아니었다. 여러 대상건설을 다같이 내밀지만 로력과 건설기계가 모자랐다. 소요일 혼합물량도 많았다. 하지만 부대장님들의 결심

결사의 8 시간, 기적은 이렇게 창조되었다

양각대외건설자양성사업소 일군들과 건설자들이

어떻게 시작하였다.

드디어 트라스설치작업이 벌어졌다.

기중기차들이 기온차게 팔을 휘둘렀다. 중앙이 18t 이하로 된 길이만도 50m인 트라스를 천천히 땅위로 들렸다.

그러나 이것은 첫시작에 불과하였다.

트라스가 벽체우를 향하여 일정한 높이까지 올랐을 때였다.

트라스가 한쪽으로 기울어지면서 어느 한 기중기차가 넘어질 듯이 기울어졌던 것이었다.

작업을 지휘하던 일군도, 기중기차운전공들도 당황하여 어찌 할바를 몰라하던 순간이었

간만에 트라스가 자기 위치에 정확히 설치되었다. 불가능이 무조건성의 정신력을 발휘하여 창조된 기적이었다.

물체를 가리려, 당의 부름에! 이런 결사관철의 신념이고 펼쳐나선 건설자들은 모다 새로운 기적을 창조하였다. 50일은 실히 걸려야 한다면 수십개 트라스설치공사가 불과 두주일만에 성과적으로 결속되었다.

사업소의 일군들과 건설자들은 오늘도 조선속도창조의 열풍을 더욱 세차게 일으키며 말은 대상건설에서 날아날마다 새로운 기적과 위훈을 창조해나가고있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류성국

대외건설지도 국 양각대외건설자양성사업소가 맡은 파충관건설장에 가보면 짧은 시간에 자기의 모습을 드러낸 강판트라스구조물을 볼 수 있다. 결코 평범한 나날에 이룩된 성과가 아니었다.

중앙동물원개건보수공사에 펼쳐나선 건설자들의 불굴의 정신력이 안아온 자랑찬 창조물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단원들과 근로자들이 김정은동지님의 체질화하고 실현에 철저히 구현하여 부강하고 번영한 사회주의조국을 일떠세우는 호명찬 투쟁에서 영웅적위훈의 창조자가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중앙동물원에 새로 일떠세우고 있는 파충관건설은 그 설계상수가 높은 것으로 하여 적지 않은 기술적문제들이 나왔다.

사업소에서 파충관의 지붕공사에 진입하였을 때였다. 강판트라스에 의한 지붕공사는 이곳 건설자들에게 생소했었다.

그러나 사업소의 일군들과 건설자들은 든든한 배심으로 공사를 힘있게 밀고나갔다. 시공과정에 제기되는 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과학원의 과학자들도 공사장으로 달려왔다.

집체적지혜가 합쳐지는 속에 지붕의 중간부위에 높이에 될 길이가 가장 긴 두개의 트라스를 지상에서 먼저 조립하고 그

다. 남편터 기중기차에 뛰어들어 사람이 있었다. 현장지휘부의 일군이였다.

일제대로 물러설 수 없다. 결사관철의 정신력을 남김없이 발휘하자.

짜레짜레 울리는 일군의 목소리를 힘으로 운전공들이 다시 종간을 다시금 으스스하게 틀어잡았다. 기발과 호각신호에 따라 기중기차들이 다시 용을 쓰기 시작하였다.

한호 또 한호, 결사관철의 분파초가 울렸다. 기울어졌던 육중한 트라스가 균형을 바로잡고 또다시 위로 솟구치기 시작하였다.

마침내 전투가 시작되어 8시

학생들의 실력을 높이는 데 모든것을 지향시켜

선교구역 3중영예의 붉은기 선교초급중학교에서

선교구역 선교초급중학교를 찾는 사람들은 이 학교가 학생들의 실력이 높고 교육조건과 환경이 잘 갖추어진데 대하여 감탄을 금치 못하고있다.

학생들을 알뜰히 믿을만한 인제로 키우기 위해 애쓰는 이곳 교육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대한 응답한 평가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존재인 학생들을 더욱 존중하고 있는 자세로 키워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업은 없으며 조국의 미래인 후대들을 혁명의 계승자로 교육교양하는 것보다 더 보람차고 영예로운 일은 없습니다.》

학교가 거둔 성과들에 대하여 알고싶어서 우리에게 이 학교 교장인 공훈교원 함명회동무는 별로 한 말이 없었고 하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었다.

《사실 학교에서 해야 할 사업은 많습니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교수사업입니다.

학교가 빛이 나지런 뒤니 뭐니 해도 학생들의 실력이 높아야 합니다.》

교육자적인 학교를 두고 말할 때 이것은 누구에게나 명백한 리치이다. 그러나 그 말에 담긴 의미가 새삼스럽게, 의미심장하

게 우리에게 안겨오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우리는 여러 교원들을 만나보는 과정에 교수사업을 위해 바쳐온 이 학교 교육자들의 피나는 노력과 탐구정열에 대하여 알게 되었다.

학교에서 우선 힘을 넣은 것은 교원들의 자질향상이었다. 지난 기간에도 이 학교 교원들의 자질은 비교적 높았다. 그러나 여기에 만족할 수 없었다. 시대는 발전하고 더우기는 교원들속에서도 세대교체가 이루어지는 조건에서 교원들의 자질향상에 부단히 힘을 넣어선 교원들도 능력이 있는 교육자, 실력자로 키우지 않고서는 교수의 길을 놓아나갈 수 없었다.

교원의 자질은 곧 학생들의 학과실적으로 나타나며 교육의 질을 결정하게 된다고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가르침을 높이 받들고 학교의 일군들은 언제나 교육의 직접적인 담당자인 교원들의 자질을 높이는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갔다.

학교에서는 이 사업을 3중영예의 붉은기를 쟁취하기 위한 운동과 밀접히 결부하여 힘있게 밀고나갔다.

교장과 부교장 홍철성동무가 신입교원들과 함께 교수참관도 진행하면서 이들의 교수분석능

력을 키워주고 앞선 교수방법을 체득시켜주기 위해 기울인 노력은 그 열매가 되고 있다.

신입교원들이 출현하는 교수기량발표회와 교수경연도 자주 조직하고 이 과정에 그들이 교수방법을 더 완성해나가기도록 이끌어주었다.

물론 본파의 교원들이 신입교원들을 적극 도와주었다. 부단한 반박과 집단의 방주속에 신입교원들이 교수담을 키우고 교수자세도 세련시키면서 짧은 기간에 오랜 교원들 못지 않게 능숙한 교육자로 자라났다.

올해에 진행될 시, 구역적인 교수경연에서 신입교원들인 김송희, 김은경, 김성실동무들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은 학교에서 교원들의 자질향상에 얼마나 힘을 넣었는가를 잘 보여 주고있다. 여기에는 본파장원인 현영실, 김경희동무들의 남다른 노력이 깃들여있다.

신입교원들뿐 아니라 오랜 교원들도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지난 시기의 교육방법에서 벗어나 새것을 부단히 받아들이고 창조하도록 하는 과정을 통한 교원들의 자질향상에서는 전철이 일어났다. 당세로서는 현실이 일어나고 있다. 당세로서는 현실이 일어나고 있다. 당세로서는 현실이 일어나고 있다.

대중을 이끌어주었다.

이 나날에 우뚝추는 교수방법을 구현하는 데서 비약과 혁신이 일어났다.

이 학교 교원들이 해마다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교수방법론에 참가하여 높은 평가를 받은 것도, 거의 모든 교원들이 10월 8일모범교육자로 자라나고 학교의 교원들이 수백건에 달하는 실용기수 및 교편물창안 등, 프로그램특수, 창의교안수상자도 세련시키면서 짧은 기간에 오랜 교원들 못지 않게 능숙한 교육자로 자라났다.

올해에 진행될 시, 구역적인 교수경연에서 신입교원들인 김송희, 김은경, 김성실동무들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은 학교에서 교원들의 자질향상에 얼마나 힘을 넣었는가를 잘 보여 주고있다. 여기에는 본파장원인 현영실, 김경희동무들의 남다른 노력이 깃들여있다.

신입교원들뿐 아니라 오랜 교원들도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지난 시기의 교육방법에서 벗어나 새것을 부단히 받아들이고 창조하도록 하는 과정을 통한 교원들의 자질향상에서는 전철이 일어났다. 당세로서는 현실이 일어나고 있다. 당세로서는 현실이 일어나고 있다.

그것은 고마운 우리 나라 사회주의교육제도를 빛내여가려는 학부형들의 뜨거운 애국의 마음이었다. 그럴 때마다 교원들은 남다른 보람과 긍지를 느끼고 있었다.

우리 당의 교육정책을 관철하며 교육혁명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여오는 나날에 교수사업뿐 아니라 학교의 모든 사업에서도 많은 성과들이 이룩되었다.

얼마전에 학교는 3중영예의 붉은기를 쟁취하였다. 학교의 영예를 빛내는 자랑과 기쁨으로 교정이 설레었다.

이 자랑을 안고 학교교원들은 전반기 12년제의무교육의 실시와 더불어 후대들을 강성국가건설을 떠메고나가기 위한 창조적인 인재들로 키우기 위해 더욱 분발해나가고있다.

교원이 지켜선 교단은 높지 않아도 거기에는 교육자의 망심과 조국의 미래가 비껴있다.

교육자들이 후대들을 키우는 사업을 더없이 보람차고 영예로운 혁명사업, 애국사업으로 여기고 후대들을 위한 밑거름이 되어 고심하던 탐구와 탐방을 아낌없이 바칠 때 학교의 영예와 함께 내 조국의 영예도 더욱 빛나게 된다것을 우리는 이 학교의 교육사업을 놓고 다시한번 가슴뜨겁게 느낄 수 있었다.

본사기자 공로혁

보천보해불상체육경기대회 폐막

지난 4일에 개막되었던 보천보해불상체육경기대회 폐막되었다.

이번 경기대회에서는 당의 체육강국건설구상을 받들고 나라의 체육기술을 하루빨리 세계적수준에 올려세우기 위해 힘차게 투쟁하고있는 선수, 감독들을 비롯한 체육인들의 드높은 열의에 의하여 좋은 성과들이 이룩되었다.

4.25체육단이 종합 1등을 쟁취하였으며 기관차체육단과

록해운체육단이 각각 2등과 3등을 하였다.

폐막식이 29일 남포에서 진행되었다. 관계부서 일군들, 체육인들, 근로자들, 청년학생들이 참가한 폐막식에서는 우수한 성적을 쟁취한 단체와 선수들에 대한 시상식이 있었다.

김병식 체육성 부상이 폐막사를 하였다.

그는 이번 경기대회를 통하여 조선속도창조의 불길을 세차게

지켜올리며 강성국가건설을 다그치고있는 인민들에게 기쁨을 안겨주고 나라의 체육기술발전에도 적극 이바지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모든 선수들과 감독들이 주체의 체육강국을 일떠세우려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체육성으로 충직하게 받들어나갈데 대하여는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철도일을 자기 일처럼

얼마전 새로운 기적과 위훈창조로 들끓는 위성과학자거리건설장으로 성이 울렸지만 지면물자를 안고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서성구역인민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구역안의 일군들과 학생들이었다. 이들이 건설자들에게 넘겨준 천여점에 달하는 철길교착물과 4천여점의 작업공구 등 많은 지원물자는 물론 학생들이 전투현장에서 진행한 힘있는 예술소공연은 사람들의 감동을 불러일으켰다.

지난 시기에다 그러하였지만 서성구역에서는 철도를 돕는 일에서 언제나 앞자리를 양보하지 않았다.

철도일을 자기 일처럼! 이것은 구역일군들뿐 아니라 구역안의 모든 기관, 기업소일

군들과 종업원들, 인민반주민들의 한결같은 성정이다.

구역당위원회의 지도밑에 조경길동무를 비롯한 인민위원회 일군들은 대중속에 들어가 철도 지원사업은 공민적의무를 다하기 위한 중요하고도 책임적인 사업이라는 것을 깊이 새겨주면서 대중의 정신력을 적극 발동하였다.

지난 5월 구역이 맡은 철길구간에 대한 구조물공사를 진행할 때에도 그러하였다.

길이 100m 되는 구조물공사에는 적지 않은 로력과 많은 자재들이 요구되었다.

하지만 구역의 일군들은 철길관리사업을 단순히 실무적인 일로만 여기지 않았다. 일군들이 직접 현장을 훑아보면서 구체적인 조직사업을 진행하였으며 구

조물공사가 진행될 때에는 현장에서 살다시피 하면서 대중을 불러일으켰다.

구역의 일군들과 구역도시건설대로동자들이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전투를 벌일 때 구역영원들 종합사업과 서정원리관을 비롯한 구역인민회, 기업소일군들과 종업원들은 공사에 필요한 자재들을 마련해가지고 찾아와 전투원들을 적극 고무해주었다.

구역의 일군들과 기관, 기업소종업원들과 주민들의 뜨거운 열의에 의하여 철길구조물공사는 불과 20여일만에 성과적으로 끝났다.

구역에서는 철길원들의 생활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 그들을 도우기 위한 사업도 적극 벌이고있다.

본사기자 홍성철

본사기자 공로혁

본사기자 공로혁

본사기자 공로혁

본사기자 공로혁

본사기자 공로혁

